

## 보도자료



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

## 발로 뛰는 윤명희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

TEL (02)784-4630 / FAX (02)788-0281 / E-mail : m567h@na.go.kr

[2015. 10. 6(화)]

### 윤명희 국회의원

### - 농협중앙회 · 농협경제지주 ·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 보도자료 -

1. 농협 여성 임원0%, 농협중앙회 정규직 여성 비율 9.3%, 농협은행 비정규직 비율 77% 등 여성 직원 홀대 심각!!
  - 농협 유리천장 여전해, 농협 여직원들에 대한 처우 및 형평성 개선에 나서야 함
2.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등에서 농협 대표이사 퇴직자 재취업 회계법인에 225억, 63건 일감 몰아줘!!
  - 농협 대표이사급 퇴직 후 재취업 근절 규정을 마련하여 회계법인 로비를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함
3. 농협 출신 퇴직자들이 농협중앙회 90%, 농협경제지주 84.8% 농협금융지주 53.8% 주요 계열사 임원 독식!!
  - 농협 퇴직 직원 무더기 계열사 진출 개선되어야 함
4. 농 · 축협 비과세 예탁금 폐지시 약19조(29.6%)의 예탁금 이탈 !!
  - 사실상 지역 농 · 축협 영업기반 붕괴 및 부실화 될 우려 !!

붙임1.

**농협 여성 임원 0%, 농협중앙회 정규직 여성 비율 9.3%, 농협은행**

**비정규직 비율 77% 등 농협 여성 직원 홀대 심각!!**

**- 농협 유리천장 여전해, 농협 여직원에 대한 처우 및 형평성 개선에 나서야 함 -**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여성 임원 0%, 농협중앙회 정규직 여성비율 9.3%, 농협은행 비정규직 비율 77% 등 농협 여성 직원 홀대가 심각하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함
- 더욱이, 농협 임원은 물론 부장급 간부인 M급도 농협은행 1.5%를 제외하고는 농협중앙회를 포함하여 0명으로 나타나, 농협 여직원에 대한 홀대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남
- 농촌의 여성 비율이 52%를 차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조합법 개정이 시행되어 여성 조합원이 30% 이상인 조합은 이사 1명을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협 여직원에 대한 처우 및 형평성 개선에 대한 여론은 더욱 큰 상황 임
- 이에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작년 농협 국감에서도 농협 여직원에 대한 홀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, 농협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아쉽다”면서,
- “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형평성 있게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은 회사는 물론 국가에도 이득이 되는 만큼 처우 개선해야 한다”고 촉구 함

붙임2.

**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등에서 농협 대표이사 퇴직자 재취업 회계법인에**

**225억 원, 63건 일감 몰아줘!!**

- 농협 대표이사급 퇴직 후 재취업 근절 규정을 마련하여 회계법인 로비를  
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함 -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대표이사 퇴직자 재취업 회계법인에 22,534백만원, 63건 일감 몰아줘 개탄스럽다며 강력하게 질타 함
- 농협중앙회는 회계법인들과 회계감사·사업·컨설팅과 관련하여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 그런데, 특정 3개 법인이 농협중앙회 및 금융지주의 계약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, 그 법인들에 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등 농협내에서 각 분야 수장을 담당했던 분들이 각각 해당 법인에 한명씩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 짐
- 대표이사가 재취업한 회계법인과 각종 계약 체결시 농협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해당 법인들을 선택 할 수 밖에 없고 계약도 적정가보다 높게 책정할 우려가 분명히 클 수 있음. 또한 사업 추진시 공정성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 임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회계법인에서 농협의 대표이사급을 거액을 주고 영입한 것은 누가보아도 회계법인이 농협의 로비(영업)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 것으로 판단된다”며, 향후에는 “대표이사급 이상은 퇴직 이후에 농협을 상대로 하여 사업이득을 취하는 회사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농협내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”고 지적 함

붙임3.

**농협 출신 퇴직자들이 농협중앙회 90%, 농협경제지주 84.8%**

**농협금융지주 53.8% 등 주요 계열사 임원 독식!!**

**- 농협 퇴직 직원 무더기 계열사 진출 개선되어야 함-**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국회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출신 퇴직자들이 농협중앙회 90%, 농협경제지주 84.8% 농협금융지주 53.8% 등 주요 계열사 임원 독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함
-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관료들이 과거 인맥을 이용하여 은퇴이후에 이익을 챙기는 관피아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, 농협 출신들이 계열사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
- 농협무역 등은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어 외부전문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출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농협 계열사 감사마저도 농협 출신들이 거의 독차차지하고 있어 전문성이나 온정주의 빠질 수 있는 상황 임.
- 특히,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민간인 경력자만 응모 가능한 직위를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외부 인사 공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임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농협 계열사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는 의무적으로 외부 인사 공모 확대 등을 통해 주요 농협계열사 임원들이 더욱 적절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”며 제도개선을 촉구 함

#### 붙임4.

### **농·축협 비과세 예탁금 폐지시 약19조(29.6%)의 예탁금 이탈 !!**

- 사실상 지역 농·축협 영업기반 붕괴 및 부실화 될 우려가 큼 -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·축협 비과세 예탁금 폐지시 189,488억원(29.6%)의 예탁금 이탈할 우려가 크다며 비과세 제도 존치를 촉구 함
- 비과세예탁금이 폐지가 될 경우 사실상 지역 농·축협이 영업기반이 붕괴되어 상당수의 조합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 임. 2015년 기획재정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조합 비과세 예탁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장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
- 2014년말 현재 취급기관 전체 비과세예탁금 총액이 138.9조원으로 전체예금의 32.6%를 점유하여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자금 조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. 실제, 최근 3년간 평균 농업인 세제혜택은 1,775억원에 달하고 있음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비과세예탁금 제도가 폐지가 될 경우 FTA 등 농업개방으로 인해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현장 농업인들의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, 농협이 비과세 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”을 촉구 함